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감정에 대한 융합적 연구: 수준별, 팀티칭, 의사소통활동유형에 따른 차이

박옥희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교수

A Convergency Study on University Freshmen's Academic Emotions towards English: Difference depending on level, team-teaching & communicative activities

Ok Hee Park

Professor, Ju Si Gyeong Liberal Arts College, Pai Cha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신입생들의 교양 영어 수업에 대한 학습 감정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준별로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의 팀티칭으로 진행되는 의사소통 활동 위주의 교양 영어 수업에 대한 신입생들의 학습 감정을 탐색하였다. 연구 방법은 B대학 신입생 327명을 대상으로 학습감정검사지(Academic Emotion Questionnaire; AEQ)를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이 영어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급반 학생이 초급반과 중급반 학생들보다 걱정과 지루함을 더 많이 느꼈다($P < .05$). 둘째,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이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원어민 교수의 수업이 한국인 교수의 수업 보다 더 재미있고, 더 만족스럽고, 덜 지루하다는 결과를 보였다($P < .001$). 셋째,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이 의사소통 활동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게임이 제일 재미있고 만족스러운 반면, 발표하기는 제일 걱정되고 지루하다는 결과를 보였다($P < .001$).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 개선을 위한 제언 및 교육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 학습 감정, 교양 영어, 수준별 수업,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의 팀티칭, 의사소통 활동, 대학 신입생

Abstract The study explores the kinds of emotions freshmen in South Korea universities experience.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their emotional experiences on level-differentiated classes, team-teaching by native speakers and Korean professors, and communicative activities. 327 freshmen participated in the survey based on 'Academic Emotions Questionnaire (AEQ)' and the statist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research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in advanced classes feel higher negative emotions such as 'worries' and 'boredom' than those of beginner and intermediated classes ($P < .05$). Secondly, participants feel higher level of 'fun', 'satisfaction' and lower level for 'boredom' in the native speaker classes than those of Korean professors ($P < .001$). Thirdly, participants feel games are the most 'fun' and 'satisfying', while presentations are viewed as the most 'worrying' and 'boring' among the communicative activities ($P < .001$). Finally,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Academic emotions, General English, Level differentiated classes, Team-teaching by native speakers and Korean professors, Communicative activities, University freshmen

*Corresponding Author : Ok Hee Park(okpark@pcu.ac.kr)

Received February 10,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March 11,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1. 서론

제 2언어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언어의 인지적 능력에 관한 연구가 우세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비로소 학습자의 정서와 감정이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요인(affective factors)' [1]으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감정은 모호하고 수치화하기 힘들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2] 여겨져 감정연구에 대한 진척이 활발하지 않았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심리학과 뇌 과학 분야에서는 감정은 학습 동기를 추동하는 중요 요인으로 보았다 [3]. 감정과 인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며 한 쪽의 구조를 다른 쪽의 렌즈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는 서로의 거울이라고 인식하였다.

대표적으로 Pekrun 외 [4]는 학습 과정과 관련된 감정의 종류를 연구하여 '학업 감정(academic emotions)'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고, 학습자의 학업 감정을 측정하기 위한 양적 조사의 틀로 '학습감정검사지(Academic Emotion Questionnaire; AEQ)'를 개발하였다. 이 AEQ는 크게 긍정의 감정(positive emotion)과 부정의 감정(negative emotion)의 두 축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감정의 축은 즐거움, 희망, 자부심, 안도감, 그리고 분노, 불안, 창피함, 절망, 지루함 등의 하부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Pekrun 외 [4]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다양하고 이 감정들이 학습자의 인지와 학습 동기에 영향을 주어 학업 성취도 및 학업의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심리학에서 출발한 학업 감정에 관한 연구는 점차 타학문 영역으로 확산되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5]. 제 2언어 분야에서도 최근 몇몇 연구자들이 언어 학습에서 감정의 중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6].

본 연구도 인지 능력에 앞서 학습자의 감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학업 감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교과목에 대한 학습 감정을 탐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살펴보고 특히 부정의 감정은 어떤 식으로 긍정의 감정으로 전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성찰해 보려고 한다.

살펴 볼 학습 감정은 수준별 영어 수업,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의 팀티칭 수업, 그리고 의사소통활동(communicative activities) 위주의 영어 수업을 대상

으로 한다.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의 능력이나 수준, 개인 차에 따라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달리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다 [7]. 우리나라에서는 7차 교육과정부터 특히 영어 과목의 선행 학습이나 학습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이나 적성의 차이로 인한 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8]. 한편, 국내 대학들은 해외유학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면서 국내에서도 우수한 영어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원어민 교수들을 채용하여 학교 특색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데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의 팀티칭 혹은 협력수업은 효과적인 수업 운영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9]. 마지막으로 국제화와 세계화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내 교양 영어 교육은 기존의 강독 중심의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목표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이 연구되고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 [10]. 이러한 점에서 수준별로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의 팀티칭 하에 진행되는 의사소통 활동 위주의 교양 영어 수업에 대한 대학 신입생의 학습 감정을 탐색해 보는 것은 현재 교양 영어 수업에 대한 적절한 연구라고 본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감정은 영어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

연구 가설 2. 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감정은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3. 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감정은 의사소통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위치한 4년제 B사립대학에서 교양 영어 수업을 수강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구글 서베이를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357명 중 응답을 누락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30명분을 제외한 327명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 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2.2 연구도구 및 분석도구

본 연구에 사용할 학습 감정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2.2.1 1차 자료

본 연구는 Pekrun 외(2002)[4]가 개발한 학습감정검사지(AEQ)와 신나민과 박종향(2019)[11]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경험하는 감정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1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신나민과 박종향(2019)[11]은 AEQ 틀을 기본으로 하지만 문화마다 정서가 다르고, 같은 상황에서 경험한 감정이라 하더라도 표현하는 어휘가 문화마다 다를 것이라는 전제로 학습자의 감정을 조사하였다. 그렇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경험하는 주된 감정어를 우리말 어휘로 15개를 채집하였는데, 이중 긍정의 감정이 9가지였고, 부정의 감정이 6가지였다. 긍정의 감정은 성취감, 만족, 감탄, 재미, 고마움, 뿌듯함, 기쁨, 즐거움, 흡족이었고, 부정의 감정은 답답함, 지루함, 걱정, 불만, 창피함, 부러움으로 나타났다.

2.2.2 본 연구에 사용할 학습 감정어 채택

1차 자료에서 추출된 15개의 감정어 중에서 본 연구에 사용할 4개의 감정어를 최종적으로 정하였다. 먼저 무작위로 B대학 교양 영어 두 분반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1차 자료에서 추출된 감정을 영어로 제시하면서 이 중 영어 수업 시간에 느끼는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적어내도록 하였다. 62명의 학습자가 적어 낸 감정어 중 긍정의 감정 상위 3가지는 성취감(achievement), 만족(contentment), 재미(fun)였고, 부정의 감정 상위 3가지는 지루함(boredom), 걱정(worries), 창피함(shame)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성취 감정(achievement emotion)과 관련된 통제-가치 이론(control-value theory, CVT)[12]에 따라 각 차원의 감정에서 대표감정을 추출하였다.

Table 1. A three-dimensional taxonomy of achievement emotions(Pekrun et al., 2007, p.16)

Focus	Positive		Negative	
	Activating	Deactivating	Activating	Deactivating
Activity	fun	relaxation	anger frustration	boredom
Outcome	joy hope pride	contentment relief	worries shame anxiety	sadness disappointment

즉, Table 1의 CVT의 삼차원적 분류법에 따르면 '재미(fun)'는 긍정적이고 활성화된 감정으로 '만족(contentment)'은 긍정적이고 비활성화된 감정으로, 그

리고 '걱정(worries)'은 부정적이면서 활성화된 감정으로 '지루함(boredom)'은 부정적이면서 비활성화된 감정에 속한다. 이와 같이 각 차원의 감정을 골고루 고려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2.3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할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학습자들에 대한 기초조사로 학습자들의 영어 수준(상/중/하)¹⁾, 성(여학생/남학생), 그리고 전공(인문사회/이공자연/예체능), 둘째, 본인이 속한 수업에 대한 긍정의 감정(재미 Q1, 만족 Q2), 부정의 감정(걱정 Q3, 지루함Q4), 셋째, 팀티칭에 대한 긍정의 감정(재미 Q5-6, 만족 Q7-8), 부정의 감정(걱정 Q9-10, 지루함 Q11-12),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감정(Q13-28)을 묻는 질문으로 설문문항은 총 28개로 구성되었다. 의사소통 활동은 짝 활동(Q13-16), 묻고 답하기(Q17-20), 게임(Q21-24), 그리고 발표하기(Q25-28)에 대한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이 각각 두 문항씩 배정되었다. 이 하위 활동들은 박옥희와 심란희(2019)[13]가 교양영어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활동 중 선호도가 높게 나온 활동들이다. 학습자들에 대한 기초조사는 체크리스트로 알아보았고, 수준별 수업, 팀티칭,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감정은 7 리커트(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2.2.4 분석 도구

AEQ 설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 도구는 SPSS 19.0 버전을 사용하였다. 학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 분석하였다. 수준별 수업에 대한 감정은 기술통계, 감정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 검정은 터키(Turkey) 기법으로 집단 다중 비교하여 세부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알아보았다.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자에 따른 감정 차이는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 활동 유형별 감정 차이는 일반 선형 모형(general linear model)을 사용하였고 세부적인 의사소통 활동 유형 및 세부 감정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터키(Turkey) 기법으로 쌍별 비교 분석(pair-wise comparison)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정 간의 상관관계도 알아보았다.

1) 실제 설문에서는 영어 수준은 교재 색깔로 표시되어 있다.

3. 연구결과

3.1 설문응답자의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26)

	Variables	Frequency(%)
English Level	Beginner	85(26.1)
	Intermediate	137(42.0)
	Advanced	104(31.9)
Gender	Male	212(65.2)
	Female	113(34.8)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127(39.0)
	Science & Engineering	165(50.8)
	Arts & PE	33(10.2)

Table 2는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빈도분석으로 알아본 결과이다. 영어 수준별로는 초급반 85명(26.1%), 중급반 137명(42.0%), 상급반 104명(31.9%)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12명(65.2%), 여학생이 113명(34.8%)였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열 127명(39.0%), 이공자연계열 165명(50.8%), 예체능 33명(10.2%)로 구성되었다.

3.2 수준별 영어 학습 감정

연구 가설 1. 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감정이 영어 수준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그리고 집단 다중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3은 기술통계와 등분산 검정 결과로 수준별 집단이 동질집단인지 알아본 것이다. 재미, 만족, 걱정은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지루함은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알아보았다.

내가 속한 반의 영어 수업이 걱정된다는 설문(문항 3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 < .05$), 이 중 상급반(3.42)의 걱정이 제일 높았으며, 초급반(3.36)과 중급반(3.34)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 두 반의 학습에 대한 걱정정도는 평균(3.37)보다 낮았다. 내가 속한 반의 영어 수업이 지루하다는 설문(문항 4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 < .001$), 이 중 상급반(3.38)이 제일 지루하다고 응답하였고, 초급반(3.14)과 중급반(3.01)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 두 반의 지루함 정도는 평균(3.16)보다 낮았다.

Table 3. Students' academic emotions depending on English level

Emotion	Level	N	M	sd	ρ
Positive	Beginner	85	4.94	1.61	.783
	Intermediate	137	4.46	1.63	
	Advanced	104	4.42	1.71	
	Total	326	4.57	1.66	
Contentment	Beginner	85	5.04	1.59	.644
	Intermediate	137	4.61	1.65	
	Advanced	104	4.42	1.77	
	Total	326	4.67	1.68	
Worries	Beginner	85	3.36	1.73	.015
	Intermediate	137	3.34	1.67	
	Advanced	104	3.42	2.02	
	Total	326	3.37	1.80	
Negative	Beginner	85	3.14	1.83	< .001
	Intermediate	137	3.01	1.60	
	Advanced	104	3.38	2.12	
	Total	326	3.16	1.84	

Table 4. Students' academic emotion among groups (N=326)

Emotion	ss	df	ms	F	ρ	
Fun	Between groups	15.61	2	7.81	2.87	.059
	Within groups	880.12	323	2.72		
	Total	895.73	325			
Contentment	Between groups	17.64	2	8.82	3.15	.044
	Within groups	902.92	323	2.79		
	Total	920.56	325			
Worries	Between groups	.389	2	.19	.60	.942
	Within groups	1051.9	323	3.26		
	Total	1052.3	325			
Boredom	Between groups	8.47	2	4.24	1.26	.286
	Within groups	1089.9	323	3.37		
	Total	1098.4	325			

Table 4는 수준 간 차이가 유의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해 본 결과 만족의 감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Table 5. Multiple comparisons on contentment (N=326)

Emotion	Level	md	se	ρ
Contentment	Beginner & Intermediate	.422	.231	.162
	Beginner & Advanced	.603	.244	.038
	Intermediate & Advanced	.180	.217	.685

*se: standard error

Table 5는 만족에 대해 그룹 간 사후 검정을 해 본 결과 초급반과 상급반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초급반이 상급반보다 학습 만족도가 0.6정도 높았다.

3.3 원어민과 내국인 교수에 대한 영어 학습 감정

연구 가설 2. 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감정이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자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6. Students' academic emotion depending on foreign professors and Korean professors
(N=327)

	Emotion	M	sd	md*	t	p
Fun	Foreign professors	5.38	1.50	.81	8.43	< .001
	Korean professors	4.57	1.74			
Contentment	Foreign professors	5.43	1.49	.73	8.13	< .001
	Korean professors	4.70	1.71			
Boredom	Foreign professors	2.50	1.46	-.64	-7.02	< .001
	Korean professors	3.14	1.68			

*md: mean differences

Table 6은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감정의 차이를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해 알아본 결과이다. 걱정 변인은 설문지 문항 오류로 통계가 불가능해서 제외되었다. 그 외 재미, 만족, 그리고 지루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의 팀티칭으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이 재미있다는 설문(문항 5-6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습자들은 외국인 교수 수업(5.38)이 한국인 교수 수업(4.57)보다 평균 0.81 정도 더 재미있다고 응답하였다($p < .001$). 팀티칭으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에 만족한다는 설문(문항 7-8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습자들은 외국인 교수 수업(5.43)을 한국인 교수 수업(4.70)보다 평균 0.73정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팀티칭으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이 지루하다는 설문(문항 11-12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습자들은 한국인 교수 수업(3.14)이 외국인 교수 수업(2.50)보다 평균 0.64정도 더 지루하다고 응답하였다($p < .001$).

3.4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영어 학습 감정

연구 가설 3. 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감정이 의사소통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선형 모형(general linear model)을 실시하였다.

Table 7. Students' academic emotion depending on communicative activities

(N=327)

	Emotion	M	sd	F	p
Fun	Pair work	4.32	1.83	28.51	< .001
	Asking & Answers	4.26	1.66		
	Games	4.79	1.61		
	Presentation	4.01	1.77		
Contentment	Pair work	4.25	1.82	15.55	< .001
	Asking & Answers	4.31	1.63		
	Games	4.64	1.64		
	Presentation	4.08	1.72		
Worries	Pair work	3.11	1.78	27.46	< .001
	Asking & Answers	3.39	1.74		
	Games	2.83	1.60		
	Presentation	3.61	1.85		
Boredom	Pair work	2.90	1.71	6.45	< .001
	Asking & Answers	3.00	1.65		
	Games	2.81	1.56		
	Presentation	3.14	1.70		

Table 7은 수업 시간에 실시되는 의사소통 활동 유형에 대한 신입생들의 감정의 차이를 일반 선형 모형(general linear model)으로 알아본 결과이다. 재미, 만족, 걱정, 그리고 지루함의 감정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의사소통 활동이 재미있다는 설문(문항 13, 17, 21, 25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의사소통 활동 중 게임이 제일 재미있고(4.79), 그 뒤로 짝 활동(4.32), 묻고 답하기(4.26), 발표하기(4.01)의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의사소통 활동에 만족한다는 설문(문항 14, 18, 22, 2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 중 게임이 제일 만족스럽고(4.64), 그 뒤로 묻고 답하기(4.31), 짝 활동(4.25), 발표하기(4.08)의 순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p < .001$). 의사소통 활동이 걱정된다는 설문(문항 15, 19, 23, 27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 중 발표하기(3.61)가 제일 걱정되고, 이어서 묻고 답하기(3.39), 짝 활동(3.11), 게임(2.83)의 순으로 걱정이 된다고 응답하였다($p < .001$).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활동이 지루하다는 설문(문항 16, 20, 24,

28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 중 발표하기(3.14)가 제일 지루하고, 이어서 묻고 답하기(3.00), 짝 활동(2.90), 게임(2.81)의 순으로 지루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p <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 4년제 B사립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준별로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의 팀티칭으로 진행되는 의사소통활동 위주의 교양 영어 수업에 대한 학습 감정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감정이 영어 수준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본 결과 걱정과 지루함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5$). 상급반이 영어 수업에 대한 걱정과 지루함이 제일 높았다. 초급반의 걱정과 지루함이 두 번째로 높았고, 중급반의 걱정과 지루함이 제일 낮았다. 그리고 수준 간 비교에서는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고($p < .05$), 초급반이 상급반 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감정을 알아본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지방 소재 두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 감정을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는 교양 영어 수업에 대해 부정의 감정보다는 긍정의 감정이 높았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그 주된 이유로 고등학교와는 다른 영어 수업방식을 들었다[5]. 따라서 수준별 수업이 학습자 감정 차이의 요인이 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감정이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자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01$). 학습자들은 원어민 교수의 수업이 한국인 교수의 수업보다 더 재미있고, 더 만족스럽고, 덜 지루하다고 응답하였다.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의 팀티칭에 관한 선호도나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들 [9,14,15]은 어느 한 쪽에 대한 일방적인 선호도 보다는 교수자의 수업 방식이나 수업 영역, 혹은 전문성에 따라 학습자의 만족도와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B대학 학습자들이 한국인 교수 수업 보다 원어민 교수 수업에 긍정의 감정이 높고 부정의 감정이 낮은 이유에 대해 수업 방식이나 운영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감정이 의사소통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

견되었다($p < .001$). 전체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학습 감정 중 게임이 제일 재미있고 만족스러운 반면, 발표하기는 제일 걱정되고 지루한 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교양 영어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활동을 추출한 선행연구[13]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감정이 다르게 나온 결과는 교수자가 학습 활동을 계획할 때 학습자의 감정을 고려해서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습 활동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대학 신입생들은 영어 수준에 따라 학습 감정이 다르고,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 수업에 대한 학습 감정이 다르고, 또 의사소통 활동 유형에 따라 학습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B대학 신입생의 15%정도의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 시간적 제약의 문제로 보다 다양한 학습 감정을 조사하지 못한 것도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긍정의 학습 감정과 부정의 학습 감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면밀히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의 학습 감정을 어떻게 긍정의 학습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등을 통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 2언어 영역에서 학습 감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학습 동기를 추동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학업 감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 [1] S. D. Krashen & T. D. Terrel. (1995).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London: Phoenix ELT.
- [2] J. C. Richards. (2020). Exploring emotions in language teaching. *RELC Journal*, 51(2), 1-15. DOI: 10.1177/003688220927531
- [3] K. Shao, R. Pekrun & L. Nicholson. (2019). Emotions in classroom language learning: What can we learn from achievement emotion research? *System*, 86, 55-66. DOI: 10.1016/j.system.2019.102121
- [4] R. Pekrun, T. Goetz, W. Titz & R. P. Perry. (2002). Academic emotions in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A program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37(2), 91-105.
DOI: 10.1207/S15326985EP3702_4

- [5] B. S. Kim & O. H. Park. (2019). The study of emotions in college English classes for freshmen in local universities. *JELLA*, 61(4), 237-262.
DOI: 10.18853/jjell.2019.61.4011
- [6] A. B. Bernado, M. G. Salanga & J. Ouano. (2009). What is an academic emotion? Insights from Filipino bilingual students' emotion words associated with learning. *Psychological Studies*, 54, 28-37.
DOI: 10.1007/s12646-009-0004-7
- [7] H. D. Brown.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nd.). New York: Longman.
- [8] O. H. Park & J. Y. Yoon. (2019).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four skills in level differentiated English class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5(4), 107-130.
DOI: 10.35828/etak.2019.25.4.107
- [9] Y. E. Lee. (2019). The effects of the recognition of collaborative classes between native English speakers and Korean English teachers on the definition factors of the learne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8), 572-583.
DOI: 10.5392/JKCA.2019.19.08.572
- [10] O. H. Park. (2015). A study on the effective general English program through team-teaching of native and Korean teachers.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31, 41-70.
DOI: 10.15755/jfs.2015.31.41
- [11] N. M. Shin & J. H. Park. (2019). An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emotions in the classroom: gender and major difference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7(1), 23-47.
DOI: 10.18230/tjye.2019.27.1.23
- [12] R. Pekrun, A. Frenzel, T. Goetz & R. P. Perry. (2007). The control-value theory of achievement emotions: An integrative approach to emotions in education. In P.A. Schutz & R. Pekrun (Eds.), *Emotion in Education* (pp.13-36).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13] O. H. Park & L. J. Shen. (2019). Comparing speaking activities of Chinese and English language textbooks and college students' perception.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50, 241-272.
DOI: 10.15755/jfs.2019.50.241
- [14] J. Bang. (2017).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NEST's and NNESTs' class management in English conversation classes of an English camp.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4), 72-82.
DOI: 10.5392/JKCA.2017.19.04.072
- [15] J. R. Kim. (2011). A meta-analysis of English KT and NT team teaching effects.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0(3), 91-113.

박 옥 희(Ok Hee Park)

[정회원]



- 198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문학사)
- 1998년 5월 : 뉴욕주립대학교(SUNY at Albany) 교육대학원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공학(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영어교육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교수
- 관심분야 : 영어교육일반, 학습감정, 교육심리, 메타분석,
- E-Mail : okpark@pcu.ac.kr